

서울 양전초등학교

3학년 신아영

옛날에 맑은공기와 미세먼지가 살았어요. 둘은 하늘나라 임금님의 아들이었죠.

하늘나라의 임금님이 돌아가시자 맑은 공기와 미세먼지는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

기분이 좋았어요. 둘은 선거 준비를 했어요. 선거 날, 맑은공기가 25표 차이로 왕이 되었어요.

맑은공기는 백성들이 살기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갔어요. 그 한편, 미세먼지는 자신이 왕이 되지

못해 하늘나라의 원한을 품고, 지상나라로 가 이산화탄소, 일산화탄소, 황사 병사를 모아 하늘나

라로 데려갔어요. 그리고 하늘나라를 공격했어요. 이 싸움이 "하늘나라 제 1대차전"입니다.

맑은공기는 하늘나라 제 1대차전 때문에 병이 들었어요. 맑은공기가 병이 들자 미세먼지 군단은

구름 성으로 들어가 수증기 덩어리 벽돌로 만든 구름성에 깃발을 꽂으려고 한 순간 맑은공기가

부른 나무장군이 왔어요! 갑자기 나타난 나무장군 덕분에 미세먼지 군단이 도망을 갔어요.

미세먼지 군단이 쳐들어와도 나무장군이 다 쫓아내요. 그런데 미세먼지의 병사 수가 늘어났어요.

이제 나무장군이 조금씩 밀리고 있어요. 그 때 맑은공기가 병사들을 데리고 왔어요. 맑은공기 군

단과 미세먼지 군단이 이제 지쳤어요. 그래서 잠시 휴전을 청했죠. 휴전을 청한 다음에 맑은공기

가 다스리는 세상은 평화로웠어요. 하늘나라의 웃음이 끊기면 안 되죠. 그래서 지상나라가 맑은공

기를 도와주기로 했어요. 나무장군을 도와 나무를 심고, 이산화탄소, 일산화탄소, 황사를 줄이기로

했어요. 우리의 이 작은 실천도 맑은공기에겐 많은 도움이 되겠죠? 우리도 맑은공기를 지켜요!